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에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46호
4월 13일
2024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조용묵 목사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선택의 기준”

‘2024년 4월 총선을 위한 한기총 온-오프라인 1,200만 성도 기도대성회’

총선 위한 한기총 1,200만 성도 기도대성회서 강조



조용묵 목사
한기총 원로서회의 고문



정서영 목사
한기총 대표회장

안정되고 평안하고 자유로운 신앙이 보장된다”며 “기도하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고, 행동하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묵 목사 “심각하고 엄중한 시국상황, 선거가 국가와 교회에 미칠 영향 생각해야 착함·의로움·진실함이 선택의 기준 삼아야”

이날 조용묵 목사는 수 24:14-15 말씀을 본문으로 ‘기회와 선택’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번 총선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시국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다. 선거 결과가 국가와 교회의 체제와 인구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주체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하여 모였다. ‘기회’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적절한 때나 상태를 의미하며 지혜롭고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기회를 포착하고 선용하는 일에 유능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어진 기회를 도리어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기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만일 교회가 종교다원주의와 인본주의적 신학사조와 세속화의 경향을 따르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타락한 교회이며 만일 신자라고 자처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일에 그 대상이 무슨 범죄를 저질렀어도 개의치 않는 사람은 가리 신자”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적대하는 사상과 이념을 가진 자를 지지하는 사람은 가짜 신자이며 이러한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을 경멸하여 고 이종신앙행위를 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나 다름 없다. 하나님을 선거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선택해야 한다. 세상 풍조에서 빠지지 않고, 교회를 적대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나 교회에 유해한 법을 만들거나 이를 묵과하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선거는 국민에게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택의 기회다. 그리스도인은 투표에 임하는 동기와 목적과 기준이 거룩하고 성경에 부합해야 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며 적극적인 옹호를 당부했다.

적려사를 전한 한기총 전 대표회장 엄선영 목사는 “역사를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치는 분도 하나님 이시다. 한 나라의 흥망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막을 자가, 지켜 주시면 뱃을 자가 없다.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달라”고 했다.

이날 한기총 전 대표회장 엄기호 목사는 “투표할 때 누구를 선택할지 한 번만 기도하고 결정한다면 나

라에 큰 변화와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대한기독교인회 이사장 장상홍 장로는 “내가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만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한기총은 총선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매일 기도할 것 *후보자는 대한민국 미래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것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성장 대책을 마련할 것 *의사는 환자 치료행위로 진면모가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고 정부 또한 환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원만한 의료개혁을 추진할 것 *〈저출산 극복을 위해〉교회가 지역 공동체의 육아와 교육을 함께 분담할 것 *국회의원 후보자는 더 이상 ‘동성애’, ‘동성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발의하지 않

을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대한민국 양극화를 극복하고 용서와 사랑의 실천으로 멀어진 관계를 연결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청년들도 함께 22대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구했다.

2부 기도회 시간에는 〈국가를 위한 기도에서〉인영 목사(합동총회 전 총회장)의 인도로 임영분 목사(전 국17개 228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오병열 목사(경기총 대표회장), 김중우 목사(충남기총 전 대표회장), 심하보 목사(서기총 대표회장), 임다윗 목사(경기총 대표회장), 진유신 목사(인기총 전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경기북기총 전 대표회장), 양명환 목사(원기총 대표회장)가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

이어 〈한국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에서 박승주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김상진 목사(합동보수 총회장), 김흥기 목사, 조윤희 목사(개혁총회 총회장), 정준모 목사(합동개신 총회장)가 기도했으며 〈사회 현안을 위한 기도〉에서 강기원 목사(예장 목장 총회장), 박지숙 목사(합동 예장 총회장), 이현숙 목사(개혁 부총회장), 김근식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송미현 목사(키리 스마아카데미)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계속해서 한기총 공동회장 정정호 목사(예장 총회장)의 합성기도 인도, 한기총 대외협력위원장 이의현 목사, 한기총 총무협의회 회장 서승원 목사(합동보수 총무의 선언문 결의,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의 광고, 한기총 명예회장 김용도 목사(기총 전 총회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부산지방회 통합 형제간의 하나 됨 선포

부산지방회 · 부산동지방회 8년 만에 아름다운 통합 이뤄



정경목 목사
순복음세움교회 담임
부산지방회장



정진 목사
순복음강림교회 담임
부산동지방회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가 분열된 지 8년 만에 부산지방회로 하나가 되었다. 양 지방회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통합 감사예배를 지난 4월 2일(토) 순복음강림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드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형제간의 아름다운 하나 됨을 선포했다.

이날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 통합 감사예배는 정영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김태주 목사의 대

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E슬 양상들의 특송,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병목 목사는 엡 4:1-6 말씀을 본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형제의 연합과 하나 됨을 선포하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실재를 위해 때론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지기를 부인하고 모든 겉손과 은사로 오려 참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지켜나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서로 사랑 가운데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용납하여 아름다운 부산지방회가 될 것”을 강조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날 조은혜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2부 축하순서로 지방회 여목부에서 10여 명의 여목회자들이 특송으로 찬양했으며 정책위원회 조용묵 목사의 축사(영상)가 있었다. 조용묵 목사는 축사를 통해 “지방회가 하나로 합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축하할 일이며,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가 부산지방회로 통합된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되었음을 확신하며 축복을 드린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어 임영분 목사(전기총 회장)의 축사,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와 전 영남동지방회장 오경택 목사의 격려사, 정경목 목사(순복음세움교회)의 축도 순으로

부산지방회와 부산동지방회의 통합 감사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곧바로 개최된 지방회 회의는 임시의장 조정화 목사의 인도로 열린 전 부산지방회장 고영권 목사의 개회기도 후 통합된 지방회의 명칭을 부산지방회로 하기로 결의하고 회원들의 동의와 제정으로 부산지

방회로의 하나 됨과 새 출발을 선포했다. 이로써 부산지방회는 3개 교회가 되었으며 신임 지방회장에 정경목 목사, 부회장에 윤혜영 목사, 총무 김태주 목사, 재무 서미근 목사, 회계 조은혜 목사가 임명되었다.

정책위원회에 추천 의뢰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모임 가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4월 2일(토) 오전 9시 30분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2차 모임을 갖고 73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약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위원장 신재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중이 선출되기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곧바로

이러한 회의에서는 서기 조길수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3월 29일까지 임원임무보자가 없음을 보고받고 총회 개최를 앞두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3월 29일까지 임원 임무보자가 없음으로 한결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진이 추천되면 관련서류를 정리 자격심사를 거쳐 임원진 후보를 공모하게 된다.



한교연 ‘부활주일 연합예배’ 개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찬양”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지난 3월 31일 오후 4시 서울시 관악구 세광중앙교회에서 2024년도 한국교회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한국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하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기원했다.

이날 부활주일 연합예배는 1부 개회 행사와 2부 예배로 나뉘어 진행됐다. 상임회장 이영한 정로가 진행한 1부 개회행사는 공동회장 조영구 목사의 환영사,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대회사, 총무협의회 회장 신조와 목사의 2024 부활절 메시지 낭독 순서로 진행됐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는 대회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이후 우주적인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이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매년 마쳐 드리고 있다.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전통이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부활의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교연은 이날 총무협의회 회장 신조와 목사가 낭독한 ‘2024 부활절 메시지’에서 “주님의 부활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지역사회와 온 사회, 더 나아가 복된 동포들에게 희망의 소식이 되도록 주님의 부활하심을 만방에 함께 증거하는 부활 주일이 되길” 간절히 소망했다.

2부 예배는 상임회장 홍정자 목사의 인도로 상임회장 조성훈 목사의 대표기도, 하인환 개 천부단의 특별공연 후, 서기 정광식 목사

의 성경봉독(요한복음 20장 13~18), 연합성가대의 부활찬양, 특별기도, 김노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바른신앙수호회 원장 최철호 목사가 △나라와 민족의 번영과 복음으로 평화통일, 공동회장 조영호 목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법 폐지, 공동회장 김경희 목사가 △제22대 총선에서 바른 지도자 선출, 공동회장 김광식 목사가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이라는 주제로 기도문을 인도했다.

부활절 맞아 서울역 쪽방화재 피해주민 위로

한국교회봉사단 치료비 및 위로금 전달



한국교회봉사단(이하 한교봉)은 2024년 부활절을 맞아 3월 28일(금) 서울역 쪽방 화재 피해 주민들을 찾아가 위로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월) 오후 5시 22분, 서울 중구 후암로 소재의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이로 인해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은 주민은 서울의 화상전문병원에 입원하여 집중치료중이며 갈

은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근처에 있는 임시 거처로 대피해 있는 상태다.

한교봉은 병원에서 치료중인 주민의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원중인 화상전문치료병원의 사회사업팀과 연계하여 치료비 일부를 예치했고 3월 28일 남대문쪽방상담소(소장 박종대)에서 마련해 준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는 주민 4분을 모시고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남대문쪽방상담소 박종대 소장과 동자동 성민교회의 이성재 목사가 함께하여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사무총장 김철호 목사는 “이번 화재사고가 상당부분 음주로 인한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볼 때 향후 동자동뿐만 아니라 남대문 쪽방촌에 위치한 쪽방촌 주민들을 위한 중독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동자동 소재 성민교회와 지역상담소, 한교봉 3개 기관이 연합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실무자 모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교회봉사단은 2011년부터 설날, 추석, 성탄 등 절기에 쪽방 주민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매년 부활절마다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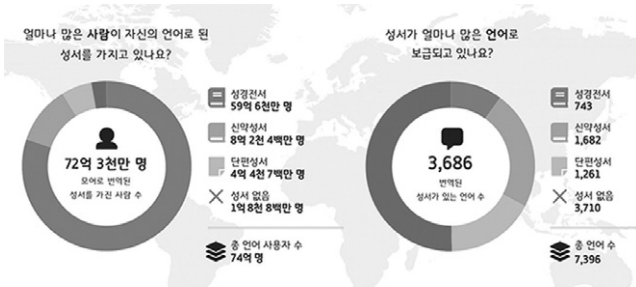
전 세계, 3,686개의 언어로 성서 번역

성서공회, 2023 세계 성서 번역 현황 발표

지난해, 전 세계 성서공회들이 12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1067개의 언어로 된 성서를 번역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의 배병에서부터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에 이르기까지 72개 언어 사용자, 1억 명은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성서를 받았다. 또한 새로운 번역 또는 기존 번역의 개정판은 11억 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86개의 언어로 완성되었다. 이는 다양한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큰 진전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2023년 말 기준, 총 7,396개의 언어 가운데 성경전서는 743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보급되었다. 신약성서는 1,682개 언어로, 단편성서는 1,261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아직 3,710개의 언어는 단편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거나 번역 중이다. 전 세계 59억 6천만 명이 성경전서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8억 2천 4백만 명, 부분적으로 번역된 성서를 갖게 된 사람들은 4억 4천 7백만 명이다. 하지만 1억 8천 8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 세계 언어 절반가량은 아직 성서조차 번역되지 않았다. 그리고 14억 6천만 명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전서가 없다.

또한 2023년 한 해, 성경전서와 신약성서,

단편성서를 포함하여 72개의 언어로 첫 번역 성서가 출판되었으며, 이 가운데 16개 언어는 성경전서로, 17개 언어는 신약성서로, 39개의 언어는 단편성서로 번역되었다.

변화하는 언어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서공회들은 난민들의 증가로 인한 디아스포라 공동체 사람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일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백골부대 십자군교회 세례식 가져

예장합동중앙 후원, 다세움비전선교회 협력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중앙총회(총회장 이종남 목사)가 후원하고 군선교의 견인차 다세움비전선교회 대표 한아람 목사가 협력한 제3 보병사단 백골부대 십자군교회(담임 이진성 군종목사) 진중세례식이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강원도 철원군 소재 십자군교회에서 드려져 40여 명의 귀한 청년들이 세례를 받고 십자가의 용사로 거듭났다.

이날 세례식 예배는 이진성 목사의 사회로 중앙총회 군선교부장 최계숙 목사의 기도, 총회 군선교부 조관숙 목사의 성경봉독, 크리스탈성구사 대표 이봉준 장로의 특송, 총회장 이종남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남 목사는 삼하 22:1~4절을 본문으로 한 ‘군인의 위대한 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군인의 목적은 전쟁에서 승리해 나라



를 지키는 것이다. 승리의 비결은 유형적인 무기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신앙심이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 부르신 기드온의 용사들이다. 기드온의 믿음과 용사들의 순종으로 미디안인의 대군을 물리친 것처럼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용사들이 되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설교에 이어진 세례예식은 이진성 군종목사의 집례로 예식사 및 서약, 부총회장 이정애 목사의 세례기도, 장영 40여 명에 대한 수세(세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세례받은 장병들은 서약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며 나라와 부대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서약했다.

생명의전화, 제주에서 자살예방 캠페인 출발

2030 청년들 중심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제주캠프’ 열려

생명의전화는 지난 3월 31일(주일) 제주에서 라이프라인 서포터즈와 함께 생명을 밝히는 결을 2024 자살예방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3월 29일부터 2박3일간 열린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제주캠프’는 매년 자살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활동 중인 청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는 2020년부터 캠페이너로 활동 중인 2030세대 청년들로 구성된 라이프라인 서포터즈 27인과, 결을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동참한 위경메이 트 전문 코치진 3인이 참여했다.

갂기 캠페인에 앞서 마련된 이번 캠프에서는 자살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연간 서포터즈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가 결어온 여정처럼, 청소년들마다 함께할 수 있고 위기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음을 이해하며 청년들이 직접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자는 마음을 전했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전문가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자살예방을 위해 ‘주변의 관심’으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 청년 서포터즈들이 앞장서고 있다.

2024년 자살예방 캠페인은 대한민국 10

대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률 7.2명(통계청, 2023)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주에서 첫 번째 의미 있는 결을을 시작했다.

서포터즈들은 제주 올레길 코스 7.2km를 걸으며 구간마다 깃발에 적힌 ‘생명을 살리는 결을, 대한민국 청소년 자살률을 낮춥시다!’를 외쳤다.



한문연, 목회자 교류 포럼 가져

교계 부흥 및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 제시

한국기독교문화교류연대(대표 이원수 목사/이하 한문연)는 지난 3월 28일(금) 전남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관선교회에서 ‘목회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목회자 교류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코로나 이후 침체되어 가는 한국기독교계에 분열과 대립이 아닌, 소통과 화합을 통한 교계의 부흥과 초교파적으로 교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류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한문연과 협력단체를 포함한 한문연에 가입한 목회자와 회원 약 100여 명이 함께해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빛고를 광주부터 한 청조주 안에서 하



나기 되기 위해 서로 다른 교단과 단체가 말씀으로 돌아가 초대교회 신앙을 회복하고 초교파적 왕래를 통해 화합된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고 다짐했다.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잃은양찾기운동본부 여성총재 김성택 목사는 심각한 분열 속에 형성된 한국교회의 이기적인 정치 문화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월드비전-공무원연금공단, 업무협약

은퇴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맞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해외아동 및 자립마을 후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29일(토) 서울 영등포구 소재 월드비전 본부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는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김동국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등 양측 경영진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은퇴공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협력하며, 이를 통해 저립된 후원금을 해외 아동과 지역 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은퇴공

무원의 사회기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게 된다. 사회기여활동을 통해 저립된 후원금은 해외아동 및 지역주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은퇴공무원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월드비전의 해외아동 결연 또는 자립마을 후원을 선택해 후원에 참여할 수 있다. 월드비전은 후원 국가 선정 및 후원금 사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으로, 향후 은퇴공무원들이 자신이 후원한 아동을 만나거나 자립마을을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4.10 총선을 위한 구국기도회...국가와 민족 위해 기도

홀사모 모임 아름다운 사모들 주최로

홀사모들의 모임인 아름다운사모들대표 박영애 사모가 4월 10일 총선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갖고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4월 9일(토)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소재 중흥교회(담임 엄배울 목사)에서 열린 이 기도회는 1백명이 넘는 홀사모들이 참석해 4.10 총선을 눈앞에 두고 나라를 위해 올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1부예배는 기도회 준비위원장 신영식 목사 사회로 이인식 목사(그리스도교회)

교회)의 대표기도, 아름다운사모들회원들의 특송, 전기총 대표회장 엄인형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엄 목사는 ‘부르짖어올라 답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 인간의 힘은 한정되어 있어 언젠가는 쇠잔해지지만 하나님의 힘은 영원 무궁하며 사망권을 이긴다.”라며, “오늘 여기에 참석한 사모들은 낙심치 말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존재들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예배는 계속해 강릉영동대학교 정창덕 총장의 격려사, 사모들을 대표한 박영애 회장의 인사 후 엄인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합심구국기도는 원로목사회 사무총장 엄병철 목사의 인도로 나라(대통령, 정부 각료, 위장자)를 위하여, ‘한국교회(목회자, 평신도를 위하여’, ‘북한 동포를 위하여’, ‘4.10 총선을 위하여, 특별히 부정부패방지 및 하나님께 대한 정직한자 선출을 위하여’, ‘이름다운 사모들 모임을 위하여’ 합심 통성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의 말씀



유영울 목사

• 열린교회 담임
• 강원지방회 전임회장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위에 오신 성육신 하신 참 사람이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His story"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이야기"를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떤 사람이 살았고, 어떤 나라가 있었고, 어떤 전쟁과 큰 사건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듯이 이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실제적인 인물이고 그 사건들도 모두 실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창조도 사실이고, 인류 역사의 중심인 예수님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등도 모두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마 28:1-10)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을 고전 15장에서 무려 58절이나 되는 긴 분량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부활의 증인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3대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 계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랜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가도 보이셨느니라 범람에서도 그 사실을 직접 보고 목격한 증인이 증언하면 그 증언은 효력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 숫자까지 소개하고 있으며, 바울 스스로도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도 이 부활의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2.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이 부활사건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니라 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6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없었음더라이요

죽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교리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통해 더 부활의 확실함을 증거하고 있는데 요만약 부활이 없다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헛 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할합니다. 즉 우리 믿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사건이요 이 부활이 없기에 우리는 이 땅위에서 주를 위해 필박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이기고 승리하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해 많은 이들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농사를 지을 때에 첫 열매를 수확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뒤에 무수히 많은 열매를 거둔다는 의미이듯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천국의 열매로 거두지게 될 것입니다.

4. 그리고 이 부활은 사망을 이긴 사건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5 사망이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 부활의 구체적인 승리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율법을 통한 죄의 기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했지만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망을 그 쏘는 것을 잃어버렸고, 부활을 믿는 신약인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바울이 왜 이 부활에 대해 길게 증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 58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58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임이라

죽 하나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부활을 목격한 확실한 증인들을 소개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핵심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앞에서 길게 증거한 것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중간에 흔들리고 주를 위해 복음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많은 어려움을 있을 것이기에 이 부활에 확실한 신앙을 갖지 못하면 뒤로 물러가 침몰에 빠질 수 있기에 바울은 복음 사역자들과 주의 일꾼들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와 열매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시간동안 절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더욱 주의 일에 힘쓰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일에 마지막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동정

한동대, 올림군과 글로벌 그린 섬



한동대학교(총장 최도성)는 지난 3월 27-28일 이틀간 경북 울릉군과 공동 추진하는 K-U시티 프로젝트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를 위한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일정에는 최도성 한동대 총장을 비롯해 김동기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 조남준 난양당대 변환경제센터장, 데이비드 벅스톤 하이dra에너지 대표 등이 직접 울릉도를 찾았다.

커리 회장, 북한권법 공백성도위협



미국의 기독교 박해감시 단체 회장인 데이비드 커리가 북한 인권법 공백으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커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기고한 컬럼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눈엣가시라고 불렀던 '동일 열린 기념탑'이 며칠 만에 위성사진에서 사라졌고, 김정은 정권에 의해 빠르게 철거됐다"고 말했다.

한기총, '함정돌가' 최재영목사 고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등 24개 교단, 단체는 대통령 영부인을 상대로 함정 물가를 행한 최재영 목사와 해당 장면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백대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한기총 등 단체들은 최 목사와 백 대표를 '영부인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 혐의로 고발했다.

마약중독예방지도사 교육



한국기독교지역협의회·에이랩아카데미(대표 김지연)가 마약예방 교육 전문가 양성에 나선다. 두 기관은 4월 4일부터 25일까지 매주 목요일 제6차 마약중독예방지도사 과정을 진행한다고 지난 4월 2일 밝혔다. 약사인 김지연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김 대표는 "마약중독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가 예방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牧羊新聞

광고문의
02)2677-9935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인간이 진리의 성령이 된다?

지난해부터 소위 은혜로교회 신우주 측으로부터 한국 주요 일간지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전면 광고가 나가고 있다. 이들이 낸 광고는 '변론 시리즈'와 '변호 시리즈' 그리고 '판결 시리즈'로 구성되어 있다. '변론' 부분에서는 자신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언론들에 대하여 성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자신들의 교주를 구속한 것에 대하여 '종교재판'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리고 '변호' 부분에 들어서는 신우주와 성도에 대한 송사를 변호한다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내용들을 게재하고 있다. 그 내용들은 황당하다 못해, 그들이 이단자임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신우주측의 광고 내용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지난해 6월 8일 조선일보에 게재된 광고 내용에 보면 '은혜로교회 성도들을 사탄의 그물, 곧 귀신의 처소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은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신 신우주 목사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역시 지난해 8월 3일 동아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이 세상에 재난, 재앙이

오는 원인, 음녀와 음부의 씨, 예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4일 동아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예수는 음부인 남자 가브리엘과 음녀인 마리아 사이에 잉태된 사생자'라고 망발을 한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12일 조선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예수가 이단의 뿌리이며, 사도들이 이단이다. 예수는 땅의 일을 말하였고 육에 속한 이단이다'라고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한다. 지난해 12월 8일 동아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사람이 만들어 낸 이론일 뿐인 부활과 환생설, 회생케 한 자가 아닌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저주받은 예수'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기독교를 부정한다. 2024년 1월 4일 조선일보에 난 내용을 보면, '행악자 예수를 삼킨 기독교, 천주교'라며 기존의 종교를 부정한다. 그리고 신우주를 '진리의 성령' 2024년 1월 18일 조선일보지라라고까지 한다.

뿐만 아니라 2024년 부활절을 앞둔 2024년 3월 28일 조선일보를 통하여, '죽어

소멸한 예수의 치명적인 거짓말'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한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부정하는 확실한 이단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교주인 신우주는 지난 2020년 2월에 공동 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오는 2025년 7월까지 징역형을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신우주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예장 합신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였고, 2015년 예장 고신교단이 참여 금지로, 예장 통합교단이 2016년 이단성으로 같은 해 예장 합동교단은 집회 참석 금지로, 그리고 2018년 예장 백석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본체는 이런 이단의 광고를 끊임없이 지면을 통해 내주고 있는 중요 언론사들이다. 이들이 낸 광고는 변론이 9회, 변호가 3회, 판결이 현재까지 26회에 이르는데, 이들 각 언론들이 광고로 이단 세력을 홍보해 준 것이다. 이들의 광고는 모두 전면 컬러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광고를 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0년 5월 8일 동아일보를 시작으로, 한국경제, 한국일보에도 잠시 나갔으며, 지금은 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신우주측을 통하여 피해를 당하고 또 피지(被害)한 한지에 있는 사람들도 인권 피해를 보고되어, 2020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들의 엄청난 광고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뻔하지 않은가? 사탄이? 이단 교주에게 속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함에도 우리나라 유수의 언론들이 이런 이단의 홍보성 광고를 지속적으로 실어주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들이 이런 광고를 내고 얻으려는 것은 언론의 지명도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불리함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은혜로교회측이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에 낸 답변서에는 '우리가 정말 이단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진리의 성령'이 한국의 여러 언론 매체에 게재될 수가 있었는가? 한국 내

기독교신분 6곳과 주류 일간지 3곳에 전면 광고가 실리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런 광고를 아직도 게재하고 있는 언론은 신우주 측의 문제점을 모를 리가 없는데, 단지 광고비를 벌기 위하여 이 용당함을 알면서도 묵과(默)하여 스스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부정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반종교적, 반사회적 교주와 그 이단의 주장을 실어주는 언론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국의 대표적 언론이며,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곳이다. 그러함에도 기독교를 이처럼 부정하고,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이단 종파의 홍보성 광고를 무제한으로 실어준다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며, 한국교회를 도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재 집중적으로 신우주 측의 반기독교적 홍보 내용 광고를 통해 이용되고 있는 언론사들은 신우주 집단에게 폭행, 감금, 아동복지법 위반을 당하고 자기 재산을 빼앗긴 피해자들과, 기독교에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단들의 주장을 실은 해당 광고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한국교회도 이런 일에 적극 나서서, 다시는 이단이나 언론들이 한국교회를 우롱하는 처사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

교단 제72차 총회 제11회 임원회

북의 핵도발 강력한 대응 한미일 공조강화

‘저출산 극복,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삶의 기준이 되도록’



김병목 목사
예하성 총회장
금산순복음교회 담임

교단 총회(총회장 김병목 목사) 제72차 총회 제11회 임원회가 지난 3월 26일(화) 오전 11시

정진균 목사) 회의실에서 열려 각종 보고와 회무를 처리하고 주요내용 등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정진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백영자

목사의 기도, 교단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오후 6:10-20 말씀을 본문으로 "골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먼저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싸움이다. 또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신감주를 입어야 한다. 진리의 하리마, 진실과 성실이다.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이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았다는 확신이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무기다.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신감주

를 입고, 영적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한다"고 당부하고 임원들을 축복했다.

부총회장 김영준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회의에 들어가 서기 임형순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김병목 목사의 개회 선언, 총무 정진균 목사의 총무보고, 재무 백영자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조진남 목사의 회계보고 사항으로 이어졌다.

총무 정진균 목사는 3월 18일(월)~22(금) 5일간 이세아태평양 신학대학원(APTS)이사회 참석 필리핀 바기오 국제총회장 심용재 목사 이사회 및 졸업식, 개교60주년 기념식, 조시아 세팍스틱 파워프루프0g(기증자: (주) 베니스FNB대표자 이용원) 1500개를 지명회 장에게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는 내용 등을 보고했다.

결의 및 안건토의 각종 청원 사항으로 교



역자기립 청원, 전도사임명 청원 등의 내용이 결의되었다. 기타사항으로 제2회 선거관리위원회 모임, 부산지방회(부산지방회부산동지회) 통합감사예배, 경기서부지회(기침) 설립예배, 건 대만 협력선교사(전도사) 목사 안수 건등의 내용 등이 보고되었다.

특히 제73차 정기총회가 오는 5월 20일(월)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정전에서 개최되는 바 오전 11시부터 등록하고 오후 1시부터 개회예배, 오후 2시 30분 사무총회 및 기도회가 개최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김영병 공식 종료 선언 후 강력한 독감을 비롯 최근 특이한 감염 사례가 나

타고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잘 점검했다. 아울러 임원들은 세계 최고의 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한 탈출예목으로 영혼을 수렁으로 빠뜨리는 사이비집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북한의 핵무장 야욕을 봉쇄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폭을 확대하여 국가안보에 특이 생기기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4월 10일(수) 총선과 관련 부정선거의 철저한 방지와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기준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다.



제주교도소 재소자들의 부활절 감사예배

제주지방회

제주지방회(회장 안재홍 목사)는 기독교 최고의 절기인 부활절에 즈음하여 제주시 정실동 길51 소재 제주교도소(소장 배정석)에서 교정위원회 기독교분과(위원장 강위훈 장로) 주위로 재소자들과 함께 3월 28일(목) 오후 3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렸다.

부위원장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이날 예배는 최상훈 목사(제주성안교회)의 기도와 류정길 목사(제주성안교회 담임)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것'(요 20:27-29)이란 제하의 설교가 있었다.

류 목사는 "인생이라는 삶의 굴레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고 고민할 때가 있다"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옛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참된 인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한미음교회에서 준비한 성찬식으로 부위원장 김건수 목사(제주한미음교회)와 총무 최



병준 목사(수산교회)가 배령과 분병을 진행하고, 이어 회장 강위훈 장로의 인사로 "부활절 감사예배를 위해 협조하여 준 교도소 관계자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교정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날 부활절 감사예배에는 10여 명의 교정위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특히 제주성안교회에서 970여 명의 재소자 전 원에게 300만 원 상당의 특식을 후원했다.

기독교분과에서는 성경필사 지원금을 제공하여 성경필사를 하고자 하는 재소자에게 필사노트를 공급해 주고, 필사를 마친 재소자에게 필사노트 한 권당 2만 원의 포상금을 영지금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성경필사를 통해서 예수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변화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믿음을 도려 해 오고 있다.

정기지방회 갖고 새 임원 선출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윤득주 목사)는 지난 3월 26일(화) 오전 11시 한마음순복음교회(담임 오경덕 목사)에서 제33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김은수 목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민 13:30 말씀을 본문으로 한 '농과 이기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전임지방회장 최용은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월례회는 윤득주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서기 성기찬 목사의 회원호명, 지방회장 윤득주 목사의 개회선언, 서기 성기찬 목사의 전회의록낭독 후 서기 성기찬 목사의 서



기보고, 총무 오경덕 목사의 총무보고, 감사 이상석 목사의 감사보고, 재무 이종철 목사의 재무보고, 회계 황용식 목사의 회계보고가 있었다.

이어 임원선출 시간을 갖고 지난 32회기

차 임원을 모두 그대로 연임할 것을 회원들의 동의와 제정으로 결정하고 박수로 맞이했다. 계속해서 2024년 예산안심의 등 기타 안건에 대해 토의를 하고 지방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정기지방회를 마쳤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딤후 4:9)’

충남지방회

충남지방회(회장 노우석 목사)는 지난 4월 1일(월) 오전 11시 천안서북교회(담임 오승욱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순구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김찬에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김영희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노우석 목사의 딤후 4:9-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의 설교, 전임회장 오일선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2부 순서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회장 오일선 목사)의 추천으로 2024년 새 임원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오



승욱 목사(천안서북교회), 총무 김순구 목사(사랑이넘치는교회), 서기 김찬에 목사(추계교회), 재무 박안나 목사(화평순복음교회), 회계 한정숙 목사(예수사랑교회).

정기지방회를 마치고 지방회원들은 오송옥 목사(천안서북교회)의 선점으로 점심식사 보리밥 정식을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친목의 시간을 가졌다.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을 갖추자

경기남서지방회

경기남서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4월 8일(월) 반월교회(담임 김기인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임경영 목사(순복음하늘빛교회)의 찬양 인도, 지방회 총무 이광우 목사(순복음 새생명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사회자의 성경 봉독, 김남순 목사(해문산 기도원)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갈 5:22-24 말씀을 본문으로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만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 우리 목회자들이 사랑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가 되었을 것이라며 경기남서지방회 목회자들은 잘못된 분들이 있어도 용서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사랑함으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자"고 전했다.

이어 나라와 교단과 지방회, 개교회와 교역자들을 위해 뜨겁게 함께 기도하고 표현

자 목사(사밧가메십은나무교회)의 헌금 기도와 김기인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2부는 월례회로 회원 출석체크와 임원진일부를 개편하여 부회장에 임경영 목사, 서기에 이미경 목사가 선임되었다. 인건 토의 후 반월교회(담임 김기인 목사)에서 정성껏 준비한 점심을 맛있게 먹으며 교제를 즐긴 후 각지의 사역지로 돌아갔다.

제64차 정기지방회 개최하고 새임원 선출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영호 목사)는 지난 4월 4일(목) 은혜의강물교회(담임 김영호 목사)에서 제64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김정순 목사(은혜의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해 부회장 배영례 목사(순복음영남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신지숙 목사(순복음영남연동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영호 목사(은혜의강물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3:1-9 말씀을 본문으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복음을 듣고 받아 좋은 밭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밭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며, 말씀을 맡은 종의 사명으로 나 이에게 하느님 있다'라며 '농과 귀를 막아버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오직 은혜만을 구하고 시모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순복음



새생명교회)의 헌금기도, 전임회장 최정식 목사(순복음복된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서기 신지숙 목사의 회원점명과 각부 보고로 이어졌다.

신임임원으로 회장 김영호 목사, 부회장 배영례 목사, 총무 김정순 목사, 재무·회계 장지선 목사의 연임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기타 안건들을 처리했다.

또한 봄철을 맞아 단합하는 시간을 만들 어보자는 지방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신임 임원단에서 받고 전임회장 주덕영 목사의 동의와 전임회장 최정식 목사의 제청으로 제64차 정기지방회를 은혜롭게 마쳤다.

이어서 은혜의강물교회에서 준비한 만찬을 나누고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며 훈훈한 시간을 보내고 다음 달 총회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각지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목회 다짐

전북지방회

전북지방회(회장 최병진 목사)는 지난 4월 1일(월) 오전 11시 순복음우리교회(담임 이화숙 목사)에서 제40차 정기지방회를 개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과 지방회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이광호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서기 김희수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최병진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 목사는 시 127:1-5 말씀을 본문으로 '세우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어 주셔야 모든 일이 잘된다"고 전했다.

2부 월례회에서는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한 후 새 임원선출에서 신임 지방회장으로



김상운 목사(익산 성광순복음교회), 총무·회계 김희수 목사(익산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박성천 목사(나라전주순복음교회)를 선

출했다. 이어 지방회원들은 자리를 옮겨 식사를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정기지방회 일정을 주님의 은혜기운에 모두 마쳤다.

정기지방회 갖고 각종 회무 처리

충북지방회

충북지방회(회장 이문근 목사)는 지난 3월 25일(월) 오전 11시 삼산순복음교회(담임 최동순 목사)에서 정기지방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지방회 총무 오병용 목사의 사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의 기도, 서기 정재광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행 23:11 말씀을 본문으로 '그 날 밤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가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가 곤란하고 힘든 시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밤을 가질 것을 권면했다. 이 목사는 "비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명감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육에 감환했지만 그날 밤에 주님을 만났다"며 이 목사 자신도 난감했던 시기에 비울과 같은 그날 밤을 경험했던 과거가 있었음을 간증하며



"우리도 주님을 만나는 밤을 만들어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고 권면했다.

2부 회의는 지방회장 이문근 목사의 인도로 정기지방회의를 가졌는데, 지난 2차 회기 보고사항은 인쇄물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임원들은 지난회기 임원 모두를 유임하기로 했다.

올해는 6월에 있는 유럽 종교개혁지 성지

순례를 잘 준비하여 가는 것에 힘을 모으고, 목회자 은퇴금을 더 마련하기로 했으며, 목회자와 사모 세마나를 두 번씩 가져 목회자 영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모든 회무를 마치고 환우 목회자들과 지방회 및 총회 발전을 위해 합심 기도하고, 폐회 후에 삼산교회에서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한 후 각지의 목양지로 돌아갔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 E-mail : mok2677@naver.com / mok2677@kakao.com



균형잡힌 지역발전,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 논의

아산시지도자협의회 제4차 간담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아산시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제4차 나라와 민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기도회와 간담회를 지난 3월 29일(금) 국민의힘 아산시 갑지구 후보 전 김영석 장관 사무실에서 개최하고 균형잡힌 지역발전과 국가의 안보 국민화합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다.

1부 예배는 실무회장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환영사

가 있은 후 전 아산감리교 감리사 최상근 목사의 기도, 전 감리교 감독 김소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127-1 말씀을 본문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6.25 전쟁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피 값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금번 총선에서 지켜나갈 것"을 강조했다.

신상우 목사(전나사렛 감독)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친 후 곧바로 상임대표 박귀환 목사의 인도로 2부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황기식 목사(충청기독교회사연구소장), *아산시발전과 지도자를 위하여-강상철 목사(전 아가전대표회장), *민족복음화와 아산시복음화를 위하여 김병완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총선과 공명선거를 위하여-차주병 목사(미선월드브릿지 대표)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하고 기도에 힘을 쏟을 것을 몸소 실천하자고 했다.

3부 간담회는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예하성 전 총회장)의 진행으로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가의 미래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너무나도 중요한 선거인만큼 투표에 적극 참여하느라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만찬을 함께 하고

사람의 교제를 나누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박귀환 목사(충기연 총

회장)를 상임대표회장에 추대했으며, 상임회장에 임용석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를 임명했다.



동경 우에노임마누엘교회(백섭 선교사) 방문

최정식 목사 '자화상을 바꾸라' 생명의 말씀 증거

광주지방회 전임회장이며 광주시북구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인 순복음복된교회 담임 최정식 목사는 지난 4월 1일(월)부터 3일(수)까지 동경 우에노임마누엘교회에서 시무하는 백섭 선교사의 선교지에 스페리세션교회 회원과 함께 방문했다.

복음화율 0.4%라는 복음의 불모지 일본에서 백섭 선교사와 이영미 사모는 노숙자를 섬기는 특사역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영혼 구원을 사명으로 여기며 선교 35년째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렸고 노숙자들인 하지만 감시하게도 10여 명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열매를 얻었다.

성도들은 이번에도 다른 노숙자들을 섬기는 봉사자로 헌신과 수고를 했다. 하지만 예배당이 없어 이번에도 우에노공원에서 연합하여 노숙자 230여 명이 예배에 참여했다.

스페리세션교회 최정식 목사는 이영미 사모가 동역하는 가운데 사 43:18-19 말씀을 본문으로 '자화상을 바꾸라'라는 말씀을 통해 "노숙자 한분 한분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며 어려움 각자에게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잠재력이 있다"고 전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자화상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이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은 출신성분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자가 되었고 보혜사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 생각을 먼저 바꾸고 실패의식 좌절의식을 버리고 창조적인 생각, 성공적인 소망의 생각,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며 그 생각을 믿음의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운명이 바뀌는 현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노숙인들을 축복했다.

최정식 목사와 스페리세션교회는 선교용품과 선교비를 전달하고 함께 풍성한 나눔의 시간은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으며, 선교회장은

한우들과 행사 도우미들을 기도로 축복했다. 백섭 선교사는 살짝 귀뜸을 한다. 예배당 마련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 지기를 기도드린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 찬양,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득하기를

경남하동군 기독교연합회주관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



최정식 목사
광주북구교단협의회 대표회장



김기곤 목사
경남하동군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경남하동군 기독교연합회 주관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3월 31일(주일) 오후 2시 30분 경남하동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드려져서 사방 관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 땅의 모든 이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기도했다.

이날 경남하동군 기독교연합회주관 부

활절 연합예배에는 본 교단 광주지방회 전 임회장이며 광주시북구교단협의회 대표회장인 순복음복된교회 담임 최정식 목사가 부활절 설교자로 나섰다.

이날 하동군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부활절 연합예배는 연합회 부회장 최은장 목사의 사회로 장로부회장 조철수 장로의 기도, 연합전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이어 최정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최정식 목사는 고전 15:51-54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축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 사건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준 사건이며, 예수님의 부활

은 죽음을 전제로 하지만 임시체임이 아니라 요 11:25 말씀처럼 부활은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목사는 이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하려면 생명의 영이요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전하고 "복음화율이 낮은 하동지역의 전도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하동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와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연합회장 김기곤 목사의 소개를 받은 하승철 하동군수의 축사와 색소폰선교단의 특송에 이어 고분 김경덕 목사의 축도로 경남하동군 기독교연합회주관 부활절 연합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하동기독교연합회 부활절 연합예배

일시: 2024. 3. 31(주일) 오후 2시 30분 장소: 하동문화예술회관 2층 대강당



아산시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전)예하성총회장

상임대표회장



박귀환 목사
충기연총회장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
아산경목실장

실무회장



김병완 목사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사무총장



홍석용 목사
전)아기연대표회장

교회 단체인



김소윤 목사
전)기감감독



신상우 목사
전)나성감독



정병한 목사
아기연대표회장



김원진 목사
전)개혁신총회장



최규명 목사
기독교역사박물관장



조이철 목사
요양보호사 교육원장

자문위원



김태흠 도지사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훈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도섭 목사
충남경찰청경목



황기식 목사
충청기독교회사 연구소장



백규현 목사
인권위원장



박희중 장로
아산시장로회 회장



박해서 장로
충남평신도 사무총장



한상문 장로
YMCA 대표



박경귀 아산시장
국민의힘



이명도 아산경찰서장



박서우 교육장

전)아기연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 정연창 목사, 김소윤 목사, 강상철 목사, 신연석 목사, 임기석 목사, 최규명 목사, 도승현 목사, 강영구 목사, 임은석 목사, 임용석 목사, 연용희 목사, 이정팔 목사, 이승수 목사, 김수홍 목사, 조이철 목사, 정훈화 목사, 박도섭 목사, 황창익 목사, 심우섭 목사, 최문기 목사, 박귀환 목사, 은재천 목사, 손 혁 목사, 김병완 목사, 홍석용 목사, 임정대 목사, 박덕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온누리에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위 부활절 연합예배, 갈등과 분열의 역사 극복



이광목 목사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
위원회 대표이사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대표이사이광목 목사, 이하 한부연)는 지난 3월 31일(주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1길 6 동위원회 회의실에서 '4.10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나라와 민족 (사)한부연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을 찬양했다.

'부활의 주님, 한국교회에 오시옵소서!'라는 주제 아래 드린 이날 예배는 한부연 이사 류한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예정총회 총회장 김하인 목사의 대표기도, 예정총연 서기 김영복 목사의 성경봉독, 예정합동전국연합 총회 임원일동의 찬양, 창4동 어린이집 강경옥 원장 외 교사일동의 찬양, (사)예정총연 고분 예영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예 목사는 막 16:1-20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증인들'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전 제자들의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으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신 이후로는 믿음의 새로운 차원에 이르게 되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전하고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주님을 따르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사 하늘로 오르신 뒤에는 주께서 지상에 남겨 놓으신 사역에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영생을 허락하신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을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저출산 해결을 위해', '국가안보와 사회, 경제 발전을 위해', '종교통합주의 WCC 및 이단폐지를 위해', '한국교회 말씀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해', (사)한부연 부흥과 성령충만을 위해 김병선 목사, 권혁은 목사, 김상돈 장로, 이원호 목사, 김종대 목사, 오신미 목사, 하석수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끝으로 2부 특강순서로 (사)예정총연 이사 김순종 목사의 기도, (사)예정총연 고분 예정 피어선 총회장 김원식 목사의 '부활의 의미'라는 주제의 특강이 이어졌다.

예정보수합동 임원일동의 한글찬양, 예정보수합동총회 모성준 목사의 한글기도, (사)한부연 대표이사 이광목 목사의 인사 및 광고가 있었으며, 이광목

목사가 창4동 어린이집 교사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사)예정총연 고분 김기형 목사의 축도로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며 성회를 찬양하며 은혜기운에 마쳤다.

한국교회의 부활절연합예배는 보수와 진보의 분열 등 한국교회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같이해 왔으며 (사)한국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대표이사 이광목 목사)가 그 정통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갈등과 분열의 역사가 이어져 오고 있지만 그 뿌리가 연합이라는 기반 위에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인류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한국교회의 연합운동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살롬나비, 제54회 월례포럼 개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제로

살롬나비(상임대표 김영한 박사)는 지난 3월 24일(주일) 오후 7시에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동산교회(유종필 목사 시무)에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 기독교 민족주의 -”를 주제로 제54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기독교학술원장이며 숭실대 명예교수이신 김영한 살롬나비 상임대표께서 맡았다.

월례포럼은 동산교회 주일 저녁 예배에 동산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였으며 강연에 앞서 한국교회와 복음화를 위하여(박해원 박사, 경계대 초빙교수), 한국사회의 와인을 위하여(배선영 목사, 송파가나교회 담임목사), 세계선교와 난민을 위하여(원요한 목사, 서울대 학원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영한 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유대교 민족주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애국정신에서 나온 것이고, 모세와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세 청년 등이 대표였으며 기독교 민족주의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고 했다. 성경적 신앙은 각 나라에 있어서 그 민족에게 공동체를

세우는 방향으로 응집력이 되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제국이 망한 후에 기독교 애국지사들이승만, 안창호, 전덕기, 이승훈 이등령, 김구 등이 31정신의 계승으로 상해에서 세운 임시정부의 한창에 기독교 나라, 자유민주공화국 정신으로 세워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월례포럼은 대한민국이 이승만의 기독교적 정신으로 건국되었고 31운동을 주도한 애국자들이 역시 이승훈, 신석규, 김진선, 김마리아 등 기독교 지도자들이며, 임시정부의 한창에도 기독교 정신이 잘 명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한민국 탄생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을 상기하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다시한번 기독교인들의 자부심과 책임을 깨닫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월례포럼에 앞서 개최된 3월 이사회에서는 제55회 월례포럼, 상반기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 제28회 학술대회, 상반기 워크숍 개최 등 2024년 상반기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대한 논평

지난 20년간 정치풍토에 영향을 끼친 종북세력 주사와 586 운동권 세력은 척결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가 난장판인 것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들 책임이다. 이들 저질 정치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586 운동권이 주도한 독선과 내로남불,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혹독한 혁신 경쟁을 감행해야만 한다.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날이다. 이 날은 국민들이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날이다. 지난 20년간 대학생 운동권 정치세력이 좌파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운동권 정치는 이제 그 기능과 수명을 다했다. 이들은 너무 오래 특권에 침착했고 유아독존에 중독됐다. 그들은 좌파의 본연인 진보·사회주의를 무시하고 권력에만 기승하려 했다. 이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을 면하려고 검찰수사권을 빼앗았다. 이를 감수완박이라고 한다.

이에 청산의 칼자루를 쥐고 한국 정치의 신주류로 등장한 것이 여의도 정치권과는 거리가 먼 윤석열, 한동훈이 주축이 되는 이른바 '검찰'이다. 신주류 정치세력은 국민들의 소리에 경청하고 겸허하게 각종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우리 사회를 한없이 정하는 자유민주 법치국가로 올려놓아야 할 것이다. 올해 총선에서 운동권 정치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총선은 종북세력에 자유 대한민국이 추락하느냐, 헌법에 합치한 자유민주체제를 공공히 하느냐 갈림길에 있다.

살롬나비는 이번 총선에서 구태의연한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세대교체를 이루어 정치풍토 교체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하고, 시민들은 국민주권의지를 실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총선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여의도의 구태한 당리당락 파당 정치풍토는 청산되어야 한다.

여의도 정치의 본질은 새로운 신세대의 인식과 공정, 협력의 정치문화로 대체되어야 한다. 로마는 당대 분열을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 시스템이 차례로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등장했기에 천 년 변명이 가능했다고 한다. 무너져야 할 것이 제때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새로워질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 수는 합리적으로 줄여야 하고, 봉급은 중산층의 수준으로 내려야 하고 불체포 특권 등도 내려놓아야 한다.

2.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 수를 무기로 제정하는 당리당락적인 포퓰리즘 입법안은 국민을 피로하게 한다.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무기로 당리 당락적인 포퓰리즘 입법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 가맹사업법안, 공인중개사법안, 민주유공자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안, 공공의대 설립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를 무기로 통과시켜 이를 지켜보는 양심있는 국민들을 피로하게 했다.

그리고 위법 혐의가 있는 당대표를 기소하는 검사들을 탄핵하여 검찰과 사법부를 능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한일 음모설을 퍼뜨리며 막말하던 자들이 줄줄이 공천되는 부조리가 발생했다. 북한의 군사 테러에 눈감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을 공격한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 이들이 열린 사회의 자유 덕분에 이들은 지금 공당의 공전을 받아 국외로 탈락하는 중이다. 부지 추정 원칙을 악용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거나(이재명)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조국, 황운하), 구속된 형사피고인(송영길)이 감옥에서 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뛰어드는 기성전환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위반한 자들로서 공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만일 이들이 당선된다면 사법부의 판결이 유효통화 될 것이다. 이들의 국회 입성을 저지하는 방법은 시민의 공론과 유권자의 투표권이 없다.

이러한 반헌법적인 정치 행태는 선량한

국민의 가치관을 흐리게 한다. 선거를 통해 면죄부를 받아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반법치적인 의식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런 자들을 이번 총선에서 양심있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

3.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에서 끝없는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이끌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한다.

한국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상황에서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제마다 변화와 혁신을 공언했지만,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갈수록 분란에 휩싸이고 있다. 여야 모두 유권자들의 비호감도가 60%에 달하고 있지만, 국내외를 둘러싼 심각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주력하기는커녕 당내 기득권 지키기나 당권 강화에만 몰두한 상황이다.

한국 정치가 난장판인 것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들 책임이다. 이들 저질 정치인들이 큰소리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586 운동권이 주도한 독선과 내로남불,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혹독한 혁신 경쟁을 감행해야만 한다.

국민 여론조사는 한국인들의 판단 능력이 감성적이고 부화뇌동하는 성질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직도 광우병, 세월호, 박근혜 탄핵, 사드, 후쿠시마 과당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나 언론은 국민 여론이 잘못되었을 때는 여기에 맞서서 여론을 질책할 수 있는 애국심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4. 종북세력 주사와 운동권 및 위헌 후보, 친안학 음모설 유포 후보, 1심재판에서 유죄판 결반은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을 살생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종북세력 주사와 운동권

세력들이 정치권에서 퇴출되도록 국민의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운동권 내에서도 종북 주사와 '경기동부 연합'은 청년·여성·빈민 단체를 파고든 데 이어 민노당, 동진당까지 접수했다. 동진당은 애국가를 거부하고 유사지 우리 국가 기간 시설 타격을 모의한 반(反) 대한민국 집단이었다. 그리하여 한말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이었다

이번 총선에 연동행비례대표제를 고리로 경기동부연합의 종북주사와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명부 당선 안경권에 이들을 배정하였다.

진보당은 2014년 한말재판소가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 해산을 명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며,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 '전 안학 자폭' 등 억지주장 등 유언비어 살포를 주도한 전력 있는 위헌단체이다. 국민들은 한법가치를 부정하는 이들이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5.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하고 찬동하는 자들을 대표자로 선출해서는 안된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와 가치를 무너트리는 전대 이데올로기와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소수자인 동성애자 인권 옹호 미명 아래 다수 성정성인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성소수자들을 보호하는 역차별법이다. 기독교교회와 신자들은 이를 수년동안 반대해 왔다. 이런 역차별법을 인권법으로 발휘하거나 찬동하는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이들이 국회의원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원천 봉쇄해야 한다.

6.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총선에서 저질 국회의원을 퇴출하도록 국민들의 정치 의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 국은 산업과 기술, 문화, 예술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으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흔히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함량미달의 정치인을 뽑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될 뻔했고, 야당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가능케 한 국민들의 수준이다.

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6개월이라는 법정 시한을 무시한 채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법원이 권력층에 실태를 신고하면서 불구속하는 재판이 과연 공정한 재판인가, 재판을 통한 특권 계급의 청결이다.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고 법관도 범죄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야당 대표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특권 청결적인 재판을 서슴지 않는다. 국민들의 감건회 특권 지지 여론이 60퍼센트를 넘고 언론까지 여론에 편승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라고 하지만 민주주의 명칭 또한 여론이다. 특별히 민주정치를 할 수 있는 자질이나 양식이 모자라는 국가의 국민들일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7. 올해 4월 총선은 정부는 부정선거 사비가 없도록 사전투표 및 전자개표기 없애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검표로 투명한 선거관리를 하라.

4월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선거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없이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사전투표의 컴퓨터 조작

설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부정선거 비난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당이나 그 인물들은 정치의 흥망성쇠에 따라 의상처럼 바뀌어왔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들은 지속적이다. 국가가 있어야 정당이나 정치인들도 존재하는 것이다. 정당인들은 자기들의 당리당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염두에 두고 후보자를 내어야 할 것이다.

야당은 정당의 파당적 전략을 넘어서 국가를 위하여 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천명하고 실현시키는 인사들을 선거에 내보내고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대만은 TSMC 같은 세계적인 최고의 반도체 및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국가다. 반도체 정상품 비율은 80%로 한국 삼성50%에 훨씬 앞선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 시에 일체 전자개표기를 배제하였다. 컴퓨터 조작의 우려 때문이었다.

8. 국민들은 한법가치에 합당한 지도자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야 한다.

선거 방식과 지도자 선출에는 그 사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국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적이고 당리당락적인 의회운영을 보고 실망하였다. 국회의원직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보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 출마한 자들을 뽑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권력자향적이고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은 정치인들은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국회의원을 봉사직을 생각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사양하고 세배를 받게 받는 것에 동의하고 당리당락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단질 수 있는 자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

2024년 4월 8일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부활절 사랑의 밥 및 선물전달식’

윤중포럼, ‘월드뷰티핸즈’ ‘해돋는마을’ 과 함께 어르신들 섬겨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의 모임 ‘윤중포럼(회장 박찬규 장로)’이 전문인사회봉사기관 (사)월드뷰티핸즈 (회장 최애스터)와 (사)해돋는마을(이사장 장한일 목사)과 함께 어르신들을 섬겼다.

K-뷰티소사이터티연구소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일, 엘드림노인대학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위한 ‘부활절 사랑의 밥사랑잔치 및 선물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박찬규 회장, 김민준 운영위원장과 조중성 장로, 조동훈 대표, 노보경 회백, 심사문 대표와 장병구 총무와 분야리 목사(미국 무림공 관장) 김용구 대표 등 회원들이 따뜻한 마음을 모아 사랑의 밥을 나누고 선물을 전달했다.

특별히 봉사활동으로 잘 알려진 가수 장미화 씨는 국민 애장곡 ‘인형 하세요’를 함께 부르며 어르신들과 흥

겨운 시간을 가졌다.

장한일 이사장은 “부활절을 맞아 밥사랑잔치가 풍성해졌다”면서 “쪽방촌과 독거 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찾아 도시락과 선물을 전하며 사랑을 나눠 주신 윤중포럼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찬규 윤중포럼 회장은 “3년 전 매년 부활절 때마다 어렵고 소외된 어르신 분들께 사랑의 마음으로 밥·나눔봉사로 사랑과 나눔으로 섬길 수 있어 더욱 기쁘다”며 “어르신분들이 더욱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년간 노숙자와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섬겨온 (사)해돋는마을과 (사)월드뷰티핸즈 엘드림노인대학은 우울증 치료 및 치매예방교실과 함께 매일 무료밥 나눔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을 섬기고 있다. 이들은 한분도 결식하지 않도록 식사와 과일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굿네이버스, 남수단 평화 재건 위해 협력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한빛부대와 남수단 인도주의적 공여물자 배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25일(월)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현대중 굿네이버스 대외협력실 실장, 한빛부대 권병국 준비단장, 박지연 민관작전장교, 김승현 대외협력장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빛부대는 굿네이버스의 후원물품이 남수단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

도록 4년간 해상 운송을 지원한다. 올해는 한빛부대 18건을 통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의류, 신발, 학용품 등 총 40톤의 후원물품 운송과 배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권병국 한빛부대 준비단장은 “남수단 주민들에게 굿네이버스의 후원물품을 직접 전달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남수단에 조기 안정과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지속가능한 협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수난을 넘어 부활로

지상의 어두움은 광야의 두려움을 재촉하리.
너 광야에 인생의 목마름을 아골골짜기로 토해냈던가.
해골의 언덕 그날따라 몸서리치는 죽음의 축제였기에
아스치는 바람도 눈물에 막혀 차마
나그네 길손 같 길을 멈추어 섰다.

여자여,
니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시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하셨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비의 아픔이여
은 세상의 아픔이여라.

아 해골의 언덕이여 하늘의 통곡 들어보라.
아바지의 가슴 온 지면을 눈물로 적신다.
제 9시 하늘은 차마 그 얼굴을 돌려 외면하고,
지상은 흉흉으로 대지가 일그러질 때,
천상천하 바티에 내던 진리의 기둥이시여
천동우뢰로 당신의 비통 대신하셨다.
가상철현이여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노라.

아 저 멀리 구슬픈 까마귀는 주님을 노래하고
흑암은 장단 맞춰 시의 잔미로 화답하는데,
한 줄기 빛 없는 하늘길 넘어
천상의 슬픔은 온 우주를 뒤흔들었다.

절망의 예언이여 저주의 화신이어라.
슬픔의 예언이여 위선의 화신이어라.
아 주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시라.
독생자의 아들 버리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노라.

아 슬픔의 길릴리여 잠잠하라.
끝고나 주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

무덤의 입을 여시고 살아 나셨네.
부활 하시었네.

소자여 안심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르시되 주여 내가 여기 있노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르셨네.
주님의 물음에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응답하였네.
인전소망 교회 회중리 목사,
박영수 목사의 영접기도에 도전받고
이제 남은 생애 전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한다.

오 주여! 수난의 극치시여.
나로 오늘을 이기게 하소서.
나로 그리스도의 명예와 주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소서.
주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죄와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소서.
자신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하소서.

오 거룩한 고난의 아픔이여.
나로 참예케 하사 순결을 회복케 하시며
나로 가난케 하사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소서.
나로 나를 비우게 하사 나로 당신의 복음 창지가 되게 하소서.
복음의 창지가 십자가로 수종 들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가족세트전도 총괄 본부장 이수 교수



새학기, 전국 대학가 생명나눔 물결

3월, 9개 대학 1,354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이하 본부)는 개강 시즌을 맞아 3월 한달간 전국 9개 대학에서 총 1,354명의 학생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2023년 20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1만 7,422명으로 전체 등록자의 21%를 차지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역시 20대가 33%를 차지하며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2일 부산시 동명대학교를 시작으로 2024년 대학교 장기기증 캠페인의 막이 올랐다.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전국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장기기증 캠페인은 대학별 학생들의 자발적인 지원 봉사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

3월 13일부터 이틀간 캠페인을 진행한 경희대학교의 PTP(People To People International) 동아리 회장 신수민 씨(화학과, 3학년)는 1학년 때부터 봉사자로 참여하며 교내 장기기증 인식 확산을 위해 할



악하고 있다. 신 씨는 “1학년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19의 장벽이 높아 홍보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올해에는 그동안 무관심했던 학우들도 생명나눔의 가치에 눈을 뜨게 된 것 같아 기쁘다.”라며,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기증의 고착된 부정적인 관념을 해소하고, 장기기증 희망등록이라는 실천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

했다.

또한, 3월 20일과 21일 캠페인을 실시한 동덕여자대학교의 RCY(청소년직심자) 동아리 회장 정예인 씨(글로벌 MICE, 2학년)는 신장이식을 기다리다 유명을 달리한 친할머니의 사연을 전하며, “장기이식은 남의 일이 아닌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절실히 필요한 나눔일 수 있다.”라며,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이 개선되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3월 19일부터 이틀간 캠페인을 진행한 부산외국어대학교는 총 382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지난해에 이어 단일 대학으로는 가장 최다 인원이 생명나눔 운동에 참여하는 기록을 세웠다.

이 밖에도 명지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수성대학교 등에서도 연이어 장기기증 캠페인이 전개되며 1,354명의 청년들이 생명을 살리는 약속에 동참했다.

지미션 ‘보육원아동 선물금 지원 캠페인’ 진행

기독교 선교 단체로 해외선교사, 위기 목회자 후원

사단법인 지미션 인터내셔널(대표 박충관)은 다 음달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보육원아동선물금 지원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 참여는 지미션 홈페이지(www.gmission.or.kr)를 통해 가능하다.

보육원에 입소한 아이들은 보장시설 수급자로 분류돼 국가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생계비를 지원받아 식사비, 간식비, 피복비 등을 해결해야 한다.

지미션은 아이들이 따뜻한 사람 속에서 어린이날

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보육원 아동이 원하는 만년의 품성자를 선물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지미션 관계자는 “어린이날같이 특별한 날이 되면 학교 또래 친구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원하는 선물을 받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보육원 아이들은 그런 시간을 보내기 어렵기 때문에 더 소외감을 느끼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 캠페인을 통해 아이들이 주인공인 어린이날을 즐겁고 행복하게 보

냈으면 좋겠고 더불어 자신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서적으로 지지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가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은 후원금은 보육원에 전달되어 어린이날 보육원 아동들의 선물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지미션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기독교 선교 단체로 해외선교사 위기 목회자 후원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이나 보육원 등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1)폐놀성물질

- 1 손상된 신세포독작용(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실현)

(*고려대학교 손용석 교수님 암쪽으로 세계특허)

2)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강간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 3)타식폴린 :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포닌 : 면역력 증가

- 6)갈슘 : 홍화씨의 24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뼈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식이섬유

: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불포화 지방산

: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비타민C

: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10)기타성분

: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

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찌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좋은 때를 지키세요



현대인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식품이 인기가 많고 한의 학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몸에 병이 들어야만 병원을 찾았는데 현대 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습니다.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유지 비법은 '건강할 때 지키라' (wellcondition maintain)는 것입니다.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도 그와 같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 고 인격이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놓고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 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다가도 사이가 틀어지면 작은 일도 크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한번 깨어진 그 릋은 어지간한 접착제로는 다시 붙여서 쓰기가 쉽지 않듯이 사람의 관계도 그 와 같다고 봅니다. 아울러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합니다.

내려가는 길은 올라가는 길보다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큰소리로

한 번만 싸우면 됩니다. 성도로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한번만 가면 됩니다. 교 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한두 번만 안 해도 됩니다. 교회의 공식예배를 한두 번 만 등한시하고 어느 때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자신이 너무도 멀리 떠 나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생활을 쉬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란 전보다 갑 절의 수고와 필요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 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라고 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 11:12) 그런즉 “천국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 10:12)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딤후 3:16)

건강도 좋은 때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때를 유지해야 합니 다. 우리의 신앙은 더욱 힘써 '좋은 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요, 하나 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주께 간구하오니

이 시대에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리신다.
크고 비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리신다.어찌다 악인들이
판치는 세상... 그런 자를 따르는
백성들이 되었는가.....
해방의 선물도 자유대한민국의
세우심도 6.25인천상륙작전의 기적도
친히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셨다.
작금의 이나라 형편을 아시기에
숨통을 트이시고 온갖 불의가 드러나게 하신다.

이 또한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돌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돌보고 계심을 믿고
기대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미 세상을
이시긴 분이 아니신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공활하심은 계속되고 있다.
주님오실 그날까지 성경대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아멘.

2024. 4/4

사설

참된 리더의 모습

대선을 통해서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회 구석구석, 나라 구석구석은 아직도 전 정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고, 나라의 발전과 정책의 발목을 잡고 한숨 쉬는 일 들이 즐비하기만 하다.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다 바뀌는 게 아니다. 정권이 말뚝처럼 박아놓고 떠난 자리에는 전 정권을 비호하면서 현 정권의 발목을 잡 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 내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가 한국 경제신문의 여론 조사에 대해 최근 공 표중단을 권고했다. 이유는 여론이 다른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이라는 것이 다. 여당이 여당보다 여론조사 결과가 잘 나온 것에 대 해서 발표를 하지 말라고 권고한 것이다. 당연히 여당 예선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정권이 아직 도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여론조사는 한국경제신문 의뢰로 피एम이이가 진행 했다. 피एम이이는 다른 여론조사 기관들처럼 전화 면접 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이 아닌 응답자가 지지후보 등을 체크하도록 하는 모바일 웹 조사방식을 채용했다. 이유는 응답률을 높이고, 무당층의 설문 참여를 유도하 기 위해서였다.

피एम이이 조사에서 일부 수도권 지역구는 다른 조 사와 달리 국민의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자 여심위는 피엠이이에 게 세부 자료를 요구했고, 피엠이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등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여심위는 공표 중단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신지호 미디어위원장은 논평에서 말하기 를 '이 업체 여론조사 결과중 일부지역에서 여당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자 바로 김여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를 문제 삼았고 야권 강성 지지자들의 항의가 이어졌 다'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니다.

나라가 제대로 될까? 모두가 임플락 하고 있어야 한 다니.전 정권에서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이 저들 나름대로 끝까지 충성하고 있으니, 정책을 올 바로 시행할 수가 없는 일이다. 미국처럼 정권이 바뀌 면 지도자가 자신의 국정철학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 도록 임명직은 모두가 물러나야만 하지만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고위직들 70%가 아직도 남은 임

기가 있다며 자리에 동지를 틀고 앉아서 현 정권을 비 틀고 발목잡고 국정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정부 5년은 잇단 정책 실패와 국고 탕진, 내로남 불과 파렴치, 입법 폭주로 잠탈된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각종 파주기 정책으 로 국가 부채는 400조원이나 늘었고 마자가 말을 끈다 는 소독 주도 성장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벼랑에 몰렸다. 그 결과는 5년 만의 첫 정권 교체였다는 것이 팩트다. 1987년 5년 직선제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실패한 정권이라는 국민 평가가 내려진 것이란 는 뜻이다.

문 정권 시절 2년이 지난 즈음에 국민들은 '문 정권 이 잘한 일 한가지만이라도 내놓아봐라'고 하지 않았 나. 그리고는 잇단 정책 실패와 부동산 정책 27회 동안 옹고집을 부리며 국민을 괴롭히자 국민들은 '이게 나 라냐?'라고 하지 않았나? 벌써 있었나? 그는 퇴임후 결 핏하면 현 정권을 비판하고 자화자찬 했다. '힘한 삶을 살고 싶다'더니 책방을 열고 디류 영화를 찍었다. 자신 의 임기 때는 반대하지 않던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 류엔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고도 했다.

한미동맹을 망쳐놓고 일본은 적애라며 원수를 만들 고 중국엔 국민 방분에도 8기 환람으로 무시를 당하고, 노무현의 가르침대로 '북한과만 잘 되면 다른 것은 쟁 관처도 괜찮다'라는 말대로 문 정권의 대북 최대 실책 이라고 떠들던 '남북연락 사무소'는 김여정의 말 한 마디에 폭파되었지만 항의의 한 마디도, 배상하라는 말조 치도 꺼내지 못하지 않았나? '삶은 소대거리'라는 비 난만 자초하고 그런데 누구보고 무지, 무능, 무도하다 고 하는지 나라 망쳐놓고 '눈 떠보니 후진국?' 후한무 치한 일이다.

우리 한국은 국가와 민족 앞에 자신을 내 던진 그런 수많은 선각자들로 인해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우수 민족이었다. 다시 그 선연하고도 찬란한 자부심 가득한 국상품의 민족적 줄기를 찾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먼저 본을 보이는 것이 참된 리더의 모습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 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 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움과 제물과 생장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엡 5:2) 정치 지도자들은 자 신이 희생하므로 많은 사람을 살린 대표성을 가진 예 수님의 모습에서 배워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락처 : 편집국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02)2675-5183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3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3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총회일자 : 2024년 5월 20일(월)
- 등 록 : 5월 20일(월) 오전 11시부터
- 개회예배 : 5월 20일(월) 오후 1시
- 사무총회 : 5월 20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교역자, 장로)

2024년 4월 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병 목